
**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
중미 공화국들 간의
자유무역협정 가입에 따른
국내산업 보완대책 미수립 결과보고**

2025. 1.

관 계 부 처 합 동

한·과테말라 FTA 영향평가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미수립 결과보고

1 한·중미 FTA 추진 경과

- ('15.6월) 최초 6개국*과 협상 시작
* 파나마, 코스타리카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과테말라
- ('16.11월) 협상 타결(과테말라* 제외)
* 과테말라는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있어 미합의
- ('18.2월) 한-중미 FTA 정식 서명(과테말라 제외)
- ('21.3월) 한-중미 5개국(과테말라 제외) FTA 전체 발효*
* 국가별로 FTA 협정이 비준, 파나마가 '21.3월 비준되면서 5개국과 FTA 전체 발효
- 비준 순서 : 한국('19.8월), 온두라스·니카라과('19.10월), 코스타리카('19.11월),
엘살바도르('20.1월), 파나마('21.3월)
- ('21.3월) 과테말라 가입 의사 공식 표명
- ('21.9~23.7월) 과테말라와 협상 실시
- ('23.10~'24.3월) 한-과테말라 FTA 영향평가 실시
- ('24.4~5월) 국내보완대책 수립 여부 부처 의견조회

2 FTA 영향평가 결과 주요 내용

- ◇ (증가) 제조업은 20년간 연평균, 국내생산액 약 141억원 증가
- ◇ (감소) 농업분야는 15년간 연평균, 국내생산액 약 3억원 감소
* 수산업분야는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

① 총괄

- (경제성장 효과)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걸쳐 약 0.02%, 발효 후 10년에 걸쳐서는 약 0.02% 증가 예상
- (소비자 후생 효과) 발효 후 5년에 걸쳐 약 1.8억 달러, 발효 후 10년에 걸쳐서는 약 1.9억 달러 증가 예측
- (서비스·투자) 강화된 투자보호제도를 통해 광물·석유 개발, 건설 등 우리 기업의 과테말라 투자 도움 기대

② 제조업 분야

- **(교역창출 효과)**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600억원, 수입은 연평균 40억원으로 예상돼 **순수출은 연평균 약 560억원**으로 예상
- **(생산 효과)** 제조업(연평균 105억원) 및 서비스업(연평균 36억원)의 생산 증가로 인해 20년간 **연평균 14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** 예상
- * 섬유 및 의복 제조업의 경우 68억원의 생산효과 발생, 전체 효과 중 48.2% 차지

③ 농축산업 분야

- **(생산 효과)** 바나나, 냉동과일, 화훼류 등 수입 증가에 따른 **농업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3억원 감소** 예상
- * 타 FTA 연평균 농업피해 : (한·이스라엘) 28억원, (한·인니) 3.4억원, (한·감) 6천만원

④ 수산업 분야

- **(생산 효과)** 과테말라 수산물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
- **(수출 효과)** 어묵, 굴, 전복 등이 유망 품목으로 수출 증가 기대

3 부처별 국내보완대책 수립 여부 의견조치 결과

① 농축산업 분야

◇ 對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 비중, 피해 영향 등을 고려할 때, **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, 별도 보완대책 수립보다는 기추진 중인 보완대책을 통해 지원**

- **(수입비중)** '20~'22 한국의 對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의 0.19%로 **교역규모가 크지 않음**
- **(영향분석)** 한·과테말라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(피해 예상액 3억원/年 : 농업생산액 60조 585억원/年)
- **(조치 계획)** 기추진 중인 **국내보완대책 등 활용하여 지원**
* FTA 직접피해지원(피해보전직불), 자조금지원(과수·과채·화훼), 과수생산유통지원,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('24~'30)등 활용하여 지원

② 수산업 분야

◇ 수산물 수입 실적이 미미해 **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**되어 별도의 국내보완대책 미수립

◇ 對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 비중, 협상 결과, 피해 영향 등을 고려할 때, 별도 보완대책 수립보다는 기추진 정책을 통해 지원

□ **(수입비중)** '20~'22 한국의 對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의 0.19%로 교역규모가 크지 않음

□ **(협상결과)** 쌀·소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 양허제외, 농축산물 자유화율 67.8%로 한·중미 FTA 5개국 기체결 평균* 69.2% 대비 다소 낮음

* 코스타리카 69.4%, 엘살바도르 68.3, 온두라스 68.5, 니카라과 71.0, 파나마 68.7

□ **(영향분석)**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, 한·과테말라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○ 발효 후 국내 농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약 3억 원, 누적 45.6억 감소할 것으로 추정(KREI)

○ 피해는 주로 과실류 수입(바나나, 냉동과일 등)과 화훼류 수입으로 발생하며 연평균 피해액* 3억은 '22년 농림업 생산액(60조 585억원)의 0.0005%에 해당

* 국내산 연평균 예상 생산 감소액: 과일류 2.1억, 과채류 0.7억, 화훼류 0.2억

□ **(검토 결과)** 기추진 중인 국내보완대책 등 활용

○ 한·중미, 한·이스라엘 FTA의 경우에도 기타 과실 수입 증가에 따른 과실류, 채소류의 직·간접적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기추진 보완대책 활용

* 영향분석 결과: 농업분야 15년 누적 생산감소액(중미 340.5억, 이스라엘 424.8억), 과실·채소 15년 누적 생산 감소액(중미 330억, 이스라엘 419.7억)

○ FTA 직접피해지원(피해보전직불), 자조금지원(과수·과채), 과수생산유통지원,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('24~'30)등 활용하여 지원

- (영향검토) 수산분야의 영향분석 결과,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
 -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 후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(KMI)
 - * 최근 3년간('20~'22년) 對과테말라 수산물 수입이 없어 수입 영향 추정이 불가하며, 최근 10년간('13~'22년) 평균 수입액 기준으로 수입이 미미(1백불 ↓)하여 수입 영향 없음 예상
 - 한편,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 후 어묵, 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對과테말라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(보완대책)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국내보완대책 미수립